‘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한국불교 세계화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해외포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해외포교.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원력을 세워볼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각종 지원과 인식 부족 등으로 ‘해외포교’는 40여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승가교육 시스템 현대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와 관광객 포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포교 인프라를 하나씩 구축해야 한다.

해외 포교거점 세워 한인 역량 결집을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해외 포교

▥ ‘개척포교’에 나서야

1964년 경보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국 땅에 전하며 시작된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이후 40여 년, 한국불교는 숭산 · 도안 · 법안 스님 등 해외포교 1세대의 노력에 의해 세계 30여 개국에 150여 사찰을 건립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만 1백여 사찰이 활동하며 ‘한국 절만 찾아가도 미국 일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칭찬만 하기에는 여전히 2%가 부족하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불교는 교포 중심의 포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해외포교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사찰의 84%가 이민자 대상 포교를 하고 있었다.

현지인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중국이나 일본 불교의 아류라고 생각하고 있다.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란 주장은 그들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삼우 스님(시카고 선련사 주지)은 “숭산 스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교포포교’의 울타리에 안주했다. 이제 현지인 대상의 ‘개척포교’에 나설 때”라고 꼬집었다. 지금부터라도 현지인 대상의 ‘개척포교’를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 강원 교과과정에 외국어 포함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말처럼 해외포교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해외포교의 약점도 여기에 있다. 문광부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불교의 해외포교 인력은 241명으로 개신교 9049명의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원불교 307명에도 뒤지고 있다. 바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진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지인 포교에 나서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티베트불교가 세계인들에게 ‘불교=티베트’란 인상을 주며 발전하는 데는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큰힘이 되었다. 티베트는 1959년 국권을 빼앗겼지만 인도에서 불교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재건해냈다. 여기에 외국어와 과학교육을 커리큘럼에 추가해 스님 교육시스템을 현대화했다.

한국불교는 어떤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할까? 현실적으로 티베트처럼 18년간 불교공부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외국어 과목을 정식 강원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전달할 길이 막힌다면 그것은 해외포교를 위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동시에 외국인들을 수용할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티베트 게세 중네 스님은 “티베트불교가 서양사회에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지식인들의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포교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9월 17일 구미 보현의집에서 열린 추석큰잔치 행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교포포교에 안주… 현지인 개척포교 시급
인력자원 네트워크 구축 적재적소 배치를

▥ 한국불교 영문서적 30여종뿐

해외포교가 ‘포교의 불모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과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운 국제포교사들, 한국사찰에서 수행 중인 외국인 스님 등이 1차적인 인력자원일 것이다.

해외 사찰 거주 스님들과 국제포교사들을 네트워크화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한 외국인들도 중요 포교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불교 관련자료의 번역과 출판도 필수적이다. 2003년 포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포교사의 30%가 교재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불교 관련 영문서도 현재까지 3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는 “해외포교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불교자료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영문 등으로 번역된 경전, 한국불교 자료, 신도교육 자료 등이 다양하게 출판돼야 해외포교 역량을 배가할 수 있다.

▥ 해외교구 네트워크 구축

해외포교 주체들을 하나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기구인 해외교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교육과 관리 그리고 해외파견 등의 체계가 성립돼야 한다. 지역별 한국사찰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와 정보 공유의 중심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교구는 종단과 해외 현지사찰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축이 될 것이다.

뉴욕사원연합회장 휘광 스님(불광선원장)은 “종단이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에 포교거점을 세워 강력한 지원을 한다면, 해외 한인 인프라의 역량을 총집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수익 없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 포교에 인색
상담 · 교육 · 문화 · 의료사업과 연계해야

국내 외국인 포교

▥ 외국인노동자 포교는 계륵?

“외국인노동자 포교는 불교계에 ‘계륵’(鷄肋)과 같은 것입니다. 포교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막상 이렇다 할 ‘수익’은 없고, 안하자니 주위의 비판은 계속되고….”

평소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한 스님은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낙제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5만 5000여명. 대부분이 불교문화권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불교국가 출신들이다.

어느 계층보다 쉽게 포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4년 6월 개소한 조계종의 외국인노동자상담지원센터는 개점휴업상태다. 올해 1월 ‘홀로’ 업무를 진행하던 담당 간사가 그만둔 이후 실무자도 없이 명패만 걸어놓고 있다. 서울 지역의 몇몇 사찰에서 진행하던 지원사업도 끊긴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개신교 80여개 단체와 가톨릭 50여개 단체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선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은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 불자가 개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온다”며 “이대로 간다면 ‘불교 형제’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 원력 세우면 반드시 효과 거둔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묵묵히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스님과 사찰 ·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인 구미 마하부다 보현의집(대표 진오)은 ‘눈높이 포교’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 스리랑카 스님 2명을 초빙해 직접 법회를 주관하게 하고 인근 지역으로 ‘출장 법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또 상담,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사업 등을 벌이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내실있는 활동이 계속되다 보니 구미시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외국인전용 법당 ‘마하보디사’를 개원하기도 했던 보문선원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9월 30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라디오방송도 개국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손길 아시아인권문화연대(대표 이란주)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사장 영담), 광주 한꽃외국인노동자 쉼터(대표 현장)와 동두천 자재암(주지 법해) 등도 한국불교문화체험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한국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현의집 대표 진오 스님은 “스님들이 원력을 세우고 관심만 갖는다면 재정문제 등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산문을 개방하고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열악한 외국인노동자 포교환경.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맞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유철주 기자

圓 韓國佛教 如來宗 總務院長 月峯堂 法友 大僧正 寂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대승정께서 평택 용호사에서
2549년 9월 27일 (음, 8월 24일) 오후 9시 30분에 원적하셨기에 알려 드립니다.

※ 문상장소 : 평택 용호사 ☎ 031)691-627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 12리 20-18

● 영결식 및 발인 : 10월 1일 (음, 8월 28일)
오전 7시 용호사

※ 다비식 장소 :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10월 1일 (음, 8월 28일) 오전 10시
☎ 043)731-226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

한국불교 여래종 장례위원회 위원장 법룡